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아제르바이잔

Azerbaijan Republic

2023년 2월 27일 | 선임조사역(G2) 황수영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87천 km ² 	인구 10.2백만 명 (2022 ^e) 	정치체제 대통령제 	대외정책 튀르키예와 협력관계 
GDP 526억 달러 (2022 ^e) 	1인당GDP 5,167달러 (2022 ^e) 	통화단위 Azerbaijani Manat(AZN) 	환율(U\$기준) 1.70 (2022) 

- 카스피해 서안에 위치한 아제르바이잔은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에너지산업 위주의 경제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 취임한 알리에프 대통령이 2018년 4선에 성공하여 2025년 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예정임.
- 카스피해 지역에 대규모의 유전 및 가스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방의 에너지 기업들이 자원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튀르키예를 경유하여 유럽으로 연결되는 송유관 및 가스관을 건설하여 석유와 천연가스를 유럽지역에 수출하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간 접경 지역인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지배권을 놓고 2020년 9~11 월 양국 간 무력전쟁이 발발하여 아제르바이잔이 이 지역의 상당부분을 탈환하였으며 러시아의 중재로 동년 11월에 휴전하였음.
- 구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민족·종교적으로 유사한 튀르키예와 협력하며 EU와도 에너지, 운송 등의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2014년 이후 러시아와 경제협력 확대를 추진하였으나, 아르메니아와의 전쟁 중 러시아가 아르메니아에 무기를 공급함에 따라 양국 관계가 다소 소원해짐.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2. 3. 23 수교 (북한과는 1992. 1. 30)

주요협정 문화협정, 항공협정(이상'06), 투자증진및보호협정, 외교관상호사증면제협정,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위한협정(이상'08), 경제협력협정,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이상'13), 운전면허증 상호인정및교환협정('14), 세관상호지원협정, 무상원조기본협정(이상'19)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20	2021	2022	주요품목
수출	72	108	184	자동차,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수입	3	2	1	예술품, 전기기기, 방사선기기

해외직접투자현황(2022. 9월말 누계, 총투자기준) 22건, 5,348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e
경제성장률	1.5	2.5	-4.2	5.6	3.7
소비자물가상승률	2.3	2.7	2.8	6.7	12.2
재정수지/GDP	5.5	8.9	-6.7	4.1	17.1

자료: IMF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유가 상승세로 2021년 5.6%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22년에도 3.7%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

- 아제르바이잔 경제는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석유·천연가스 부문의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 카스피해 샤데니즈 가스전 등에서의 활발한 천연가스 생산으로 2018~19년 플러스 성장을 지속 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 및 민간소비 부진 등으로 -4.2%의 역성장을 기록하였음.
- 2020년에는 전 세계적 에너지 수요 감소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유 수출액이 전년 대비 36.8% 감소 (148.1억 달러 → 93.6억 달러)하였으며, 천연가스 수출액도 전년 대비 7.7% 감소(23.8억 달러 → 22억 달러)하였음.
- 2021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상품수출액 증가(125.9억 달러 → 216.9억 달러), 민간소비 등 내수 회복,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5.6%의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22년에도 국제유가 상승세 지속으로 3.7%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금년에는 글로벌 저성장과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대적 약세 전망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2%대로 둔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IMF 2.6%, EIU 2.8%, S&P 2.3%), 2024~27년 중에는 연평균 3%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12.2% 상승하였으나, 재정수지는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 증대 등으로 GDP 대비 17.1%의 흑자 기록

-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10년 간 평균 상승률(5.5%)의 두 배 이상인 12.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식료품, 에너지 가격 상승에 주로 기인함. 중앙은행은 정책금리 인상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으며 2022년 1월 7.5%였던 정책금리는 2023년 2월 8.5%로 높아졌음.
- 최근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중앙은행 목표치(4%±2%)를 크게 상회함에 따라 정책금리는 2021년 세 차례(9/10/12월)에 걸쳐 6.25%에서 7.25%로 인상되었고, 2022년에도 네 차례(1/3/11/12월)에 걸쳐 8.25%로 인상되었음. 금년 2월 1일에도 0.25%p 인상되어 현재 기준금리는 8.5%임.
- 한편, 2020년에 코로나19 사태 관련 재정지출 증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일시적으로 적자를 보였던 재정수지는 2021년 이후 국제유가 상승으로 재정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2021년과 2022년에 GDP 대비 각각 4.8% 및 17.1%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경 상 수 지	6,051	4,365	-228	8,292	22,094
경상수지/GDP	12.9	9.1	-0.5	15.2	31.5
상 품 수 지	9,841	8,533	2,512	11,274	25,209
상 품 수 출	20,794	19,868	12,588	21,692	37,455
상 품 수 입	10,952	11,335	10,077	10,419	12,246
외 환 보 유 액	6,452	6,831	7,413	7,576	10,586
총 외 채	22,193	22,736	23,764	23,886	24,758
총외채잔액/GDP	47.1	47.2	55.7	43.7	35.3
D.S.R.	7.9	6.1	9.2	5.8	3.1

자료: IMF, EIU

2021년 이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수출액 증가로 경상수지 흑자 지속

- 아제르바이잔의 주요 수출품목은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보일러·기계류, 전기기기, 일반차량 등임. 주요 수출상대국은 이탈리아, 튀르키예, 러시아, 그리스 순이며, 주요 수입상대국은 러시아, 튀르키예, 중국, 미국 등임
- 아제르바이잔 상품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원유 및 천연가스의 수출액이 최근 크게 증가하여, 2022년 1~11월 중 원유는 183억 달러, 천연가스는 148억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38.6% 및 169.1% 증가하였음.
- 2022년 상품수출액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수출액 증가에 힘입어 374.6억 달러로 전년(216.9억 달러) 대비 72.7%의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상품수입은 122.5억 달러로 전년(104.2억 달러) 대비 17.5% 증가함. 이에 따라 상품수지 흑자는 2021년 112.7억 달러에서 2022년 252.1억 달러로 123.6%나 증가하여 경상수지 흑자에 기여하였음.
- 2023년에는 글로벌 저성장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겠지만, 2020~21년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됨(EIU).

* 국제유가(\$/배럴, 브렌트유) : 42.3(2020) → 70.4(2021) → 99.8(2022) → 86.6(2023)

- 천연가스는 2020년 11월 완공한 아드리아안 횡단 파이프라인*(Trans Adriatic Pipeline)를 통해 유럽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국은 이탈리아, 튀르키예, 조지아 등임. 원유는 이탈리아, 이스라엘, 크로아티아 등으로 수출됨.

* 샤페니즈 가스전과 그리스, 알바니아를 거쳐 이탈리아 남부로 연결

대외거래

외환보유액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에 월평균수입액의 5.9개월분으로 추정

- 외환보유액 규모는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 지속(2020년 제외) 등으로 최근 증가 추세를 지속하여, 2021년 70.8억 달러(월평균수입액의 4.7개월분)에서 2022년에는 39.9% 증가한 75.9억 달러(월평균수입액의 5.9개월분으로 추정)를 기록하였음.
 - 금년에도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환보유액은 전년대비 21.2% 증가한 92.0억 달러로 전망되며, 이는 월평균수입액의 약 4~5개월분으로 단기적 대외지불능력은 무난한 수준임(Fitch).
 -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구조개혁 부진 등으로 인해 2021년 일시적으로 순유출을 기록하였으나, 2022년에 18억 달러 순유입으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되며 2023년에도 20억 달러 내외의 순유입이 전망됨(UNCTAD, EIU).
- * FDI 유입액(백만 달러) : 1,403('18) → 1,504('19) → 507('20) → -1,708('21) → 1,800('22^e)
- 한편, 아제르바이잔 중앙은행은 2017년 4월 달러당 1.7마나트의 사실상 고정환율제(페그제)를 도입하였으며 국부펀드(SOFAZ) 보유외환 매각 등 적극적인 시장개입으로 환율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국부펀드 규모는 2022년 말 현재 490억 달러로 외화수요 대응에는 별 문제가 없는 수준임(EIU).

외채상환능력

총외채잔액은 증가 추세이나, 총수출액과 GDP 규모의 증가로 외채상환능력 지표는 개선

- 총외채잔액은 2021년에 전년 대비 1.2억 달러(0.5%) 증가한 238.9억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2022년에도 전년 대비 8.7억 달러(3.7%) 증가한 247.6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총외채잔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GDP 규모가 2021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결과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2020년 55.7%에서 2021년 43.7%로 감소하였고, 2022년에도 35.3%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됨. 아울러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도 최근 상품수출 호조로 낮아지는 추세임('21년 87.5% → '22년 57.4% 추정).
- 총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은 2020년 4.1%, 2021년 1.8%에 이어 2022년에도 2.6%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외채구조가 안정적임.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율은 2019년 16.9%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21년 5.6%, 2022년 6.1%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어 단기외채상환위험도 낮은 수준임.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최근 5년 간 IMF와 세계은행 권고 수준인 18~20%보다 크게 낮은 10% 미만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1년 5.8%, 2022년 3.1%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총수출증가율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2021년 60.0%, 2022년 58.1%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이에 따라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감소추세임.(2020년 139.3% → 2021년 87.5% → 2022년 57.4%)

구조적취약성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로 국제유가 변동에 취약

- 아제르바이잔은 에너지 수출이 총수출액의 90%, GDP의 30%, 재정수입의 75%를 차지하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으며(Fitch), 국가경제가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에 매우 민감함.
- 2021년 기준 상품수출 구성은 석유제품 88.5%, 식료품 4.9%, 금속 1.2% 순이며, 상품수입 구성은 기계 및 장비 24.6%, 식료품 15.3%, 운송장비 15.3% 등임.
- 2014~15년의 에너지 가격 폭락 당시 GDP 규모가 2014년 750억 달러에서 2016년 380억 달러로 급감하였고, 심각한 경제난으로 생활고 해소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바 있음.

은행산업이 여전히 취약하며, 부패 만연 등으로 구조개혁 추진도 지지부진

- 아제르바이잔 금융산업은 은행업 구조조정, 부실여신 등으로 구조적 취약성이 지속되고 있음. 은행 수는 2015년 45개에서 2021년 말 26개로 줄어들었고, 2020년에는 부실여신의 영향으로 4개 은행(AtaBank, AmrahBank, AG Bank, NBC Bank)에 대한 은행업 면허가 취소된 바 있음.
- 2017년 아제르바이잔 최대 상업은행인 IBA(International Bank of Azerbaijan)의 33억 달러 부실여신에 대한 채무재조정이 진행되는 등 최근 무수익여신(NPL) 비율은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은행업 무수익여신비율 : 2017년 20% → 2019년 8.3% → 2021년 5.5%
- 비석유 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 구조개혁 추진이 지지부진하며, 이는 만연한 부패 및 관료주의 등에 기인함. 향후 아제르바이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비석유 부문의 육성이 필수적임.

성장잠재력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상당한 성장 잠재력 보유

- 아제르바이잔은 2021년 말 기준 70억 배럴의 원유 확인매장량(전 세계의 0.4%) 및 2.5조 m³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전 세계의 1.3%)를 보유한 자원부국임(BP).
- 2021년 기준 원유 생산량은 일평균 72.2만 배럴로 전 세계 생산량의 0.8%, 천연가스 생산량은 연간 318억m³로 전 세계 생산량의 0.8%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 외국기업과의 합작으로 유전 및 가스전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으로 연결하는 신규 파이프라인 건설 등으로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마련하였음.
- 1994년 ACG(Azeri-Chirag-Gunashi) 유전에 외국기업을 중심으로 360억 달러가 투자되었고, 1998년 생산이 개시된 샤테니즈(Shah-Deniz) 가스전에는 BP, 말레이시아 Petronas 등이 참여하고 있음.
- 샤테니즈 가스전으로부터 튀르키예를 연결하는 TANAP 가스관이 2019년 완공되었고, 이듬해 동 가스관에서 그리스를 거쳐 이탈리아로 연결되는 TAP 가스관이 완공되어 유럽으로의 수출망이 구축됨.

정책성과

에너지 수출 소득으로 국부펀드(SWF)를 조성하여 정부예산 지원, 교육 분야 등에 활용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액의 일정 부분을 국부펀드인 SOFAZ(Sovereign Oil Fund of Azerbaijan)에 적립하고 있음. 2022년 말 현재 SOFAZ의 자산규모는 약 490억 달러로 GDP의 70%에 달하고 있음.
- 1999년 12월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SOFAZ는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위한 재원 및 고등교육 국제경쟁력 향상 프로그램, 송유관 등 인프라 투자 등에 사용되고 있음.
- 2021년 SOFAZ의 예산내역을 보면, 수입은 총 80억 마나트로 이중 에너지판매수입(80%)이 대부분이고 그 외 에너지 부문 계약 보너스(10%), 자산관리수입(10%) 등이며, 지출은 총 122억 마나트로 대부분 정부 예산지원(99%)으로 사용됨.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운송 및 물류 개선

- 2020년 튀르키예와의 MOU 체결을 통해 아제르바이잔 영토인 나흐치반(Nakhchivan) 자치공화국과 기존의 BTK(Baku-Tbilisi-Kars) 철도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동 철도 완공 시 나흐치반에서 튀르키예 Kars 지역으로의 운송 및 물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아제르바이잔은 2020년 아르메니아와의 전쟁에서 탈환한 지역의 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동 지역의 재건을 위해 2021년 12.9억 달러의 정부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동 지역의 재건 및 복구를 위해서는 향후 5~10년 간 최소 1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됨.
- 한편, 세계은행이 매년 평가하는 기업경영여건(Doing Business)에서 아제르바이잔의 순위는 양호한 수준으로, 2020년에 전체 조사대상 190개국 중에서 34위를 차지함(2019년 25위).
- 부문별로는 자금 조달(1위), 창업(9위), 법적 분쟁 해결(28위) 등이 높은 순위를 기록한 반면, 소액투자자 보호(105위), 통관행정(83위)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음.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 비율을 2030년까지 30%로 제고하는 계획 추진 중

- 아제르바이잔 에너지부는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17년 16%에서 2030년까지 30%로 제고하는 그린에너지 강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2017년 전체 전력생산의 84%를 화석연료 등 전통 에너지에 의지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적절한 정책 방향임.
- 또한, 외국기업과 협력을 통해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여 2021년 4월 UAE의 Masdar사와 2억 달러 규모의 태양광발전소(230MW) 건설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2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 ACWA사와 합작으로 3억 달러 규모의 풍력발전소(240MW) 건설 기공식을 가졌음.

정치동향

알리에프 대통령,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의 승리로 견고한 통치기반 확보

- 일함 알리에프 현 대통령은 부친인 헤이다르 알리에프 전 대통령을 계승하여 2013년부터 집권하고 있으며, 2018년 4월 대선에서 86.2%의 득표율로 4선에 성공하여 2025년까지 집권할 예정이다.
- 아제르바이잔의 정치 시스템은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된 권위주의적 체제로 의회의 권력은 제한적임. 2009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임기 제한 철폐, 2016년 대통령 임기 연장(5년 → 7년) 등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2017년에는 현직 대통령의 부인인 메흐리반 알리에바가 제1부통령으로 임명됨.
- 알리에프 대통령은 이웃 국가인 아르메니아와 벌인 영토 분쟁(2020년 9~11월)에서 아르메니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던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상당 부분을 탈환하여 국내 통치기반이 더욱 강화되었음.
- 아르메니아와의 영토 분쟁은 양국 사이에 위치한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아제르바이잔 영토의 약 20%에 해당되는 면적)에 대한 지배권 확보 전쟁이었음. 동 지역에는 구소련 시기부터 아르메니아인이 거주하였으나, 1991년 12월 독립을 선언한 이후 양국 간 무력충돌이 발생하였고 러시아의 중재로 휴전한 바 있음.
- 알리에프 대통령은 무력분쟁 종료 직후인 2020년 12월 1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분쟁은 종료되었으며, 이 지역 거주민은 모두 아제르바이잔 시민”이라고 선언하였음.

2020년 2월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다수 의석 확보

- 2020년 2월 실시된 총선에서 알리에프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여당 신아제르바이잔당(New Azerbaijan Party)이 전체 125석 중 70석을 확보하였고, 나머지는 무소속 및 친정부 군소정당에 돌아감. 동 총선은 당초 2020년 11월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의 개혁정책에 대한 의회의 지원 부진을 이유로 집권당이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제안하여 2020년 2월 초로 앞당겨 실시되었음.
- 2020년 2월의 총선과 2018년 4월의 대선 모두 알리에프 및 집권 여당인 신아제르바이잔당의 승리로 끝났으나, 국제 선거감시단은 두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음.

2025년 대선 및 총선이 예정되어 있으나, 정치지형의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

- 2025년에 대선 및 총선이 예정되어 있으나 현재의 정치지형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현 정부의 권위주의에 불만을 가진 젊은 유권자들이 정치적 다양성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음(EIU).
- 아제르바이잔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가 민주주의 체제로 바뀔 가능성은 당분간 낮으며, 정부의 주된 관심사는 서유럽을 연결하는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됨. 또한, 접경 지역에서 아르메니아와의 무력충돌 재발 가능성은 상시적으로 존재함(Fitch).

사회동향

야권의 영향력이 미미한 가운데 정부는 반정부 시위에 강경 대응

- 2020년 2월 총선 결과 의회 의석의 56%를 여당이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의석도 무소속 또는 친정부 성향의 소수 정당 의원들이 차지하여 정부에 비판적인 야당 세력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됨.
- 아울러 엄격한 언론 통제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미디어나 시민사회의 역할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실제로 아제르바이잔의 언론 자유도는 전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남.
* 언론자유도지수(국경없는기자회) : 2021년 180개국 중 167위 → 2022년 180개국 중 154위
- 경찰은 정부에 대한 비판 집회나 시위 등에 대해 강경 대응하고 있음.
- 2020년 2월 총선 이후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반정부 집회가 개최되자, 아제르바이잔 경찰은 야당 대표 3명을 포함한 100여 명의 시위대를 강제로 구금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였음. 2021년 12월에도 경찰은 수도 바쿠에서 야당 정치인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키고 20여 명을 체포함.

정부의 부정부패 방지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 부패 만연

- 2022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평가한 아제르바이잔의 부패인식지수(CPI) 순위는 전체 180개국 중 하위권인 157위임. 이는 기존의 평가인 2010년 134위(평가대상국 178개), 2015년 119위(평가대상국 168개국)보다 하락한 수준으로, 사회 전반에 부패가 만연한 것으로 평가됨.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공공행정, 교통정책, 공공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패 방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2005년 부패 방지를 위한 '반부패 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체인 '열린 정부 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의 가이드라인 충족을 위한 '2016~18년 열린 정부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음.
- 2019년 6월에는 '열린 정부를 위한 새로운 국가 액션플랜'을 추진하는 한편, 수도 바쿠에서 세계 각국 대표가 참여하여 정부 정책의 투명성 향상 등을 논의하는 'UN Public Service Forum'을 개최하였음.

민주주의, 정치적 자유 등의 가치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평가

- 아제르바이잔은 민주주의, 정치적 자유, 인권 증진 등의 활동을 하는 국제 민간단체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가 평가하는 세계자유지수(Freedom in the World)에서 '부자유' 등급으로 분류되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음.
- 프리덤하우스의 최근 보고서(Freedom in the World 2022)에서 사회적 자유도(Global Freedom Score, 10점으로 '부자유')와 인터넷 자유도(Internet Freedom Score, 35점으로 '부자유') 모두 조사대상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민주주의 수준도 투르크메니스탄과 함께 CIS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임.

국제관계

튀르키예와 긴밀한 상호 협력관계 유지

- 아제르바이잔은 같은 투르크계 민족국가인 튀르키예와 언어, 종교, 문화적으로 유사하며, 양국은 정치, 경제, 군사 등 각 분야에서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고 있음.
- 2020년 9~11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의 무력충돌에서 튀르키예는 아제르바이잔을 지지하였고, 동 분쟁을 조정하는 민스크 회의에도 공동의장국으로 참여하였으며 2020년 11월 휴전 이후에도 러시아와 함께 '공동 휴전 감시센터' 창설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음.
- 양국은 2020년 5월 상호 비자 면제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였고,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특혜무역협정(PTA)도 체결하였음. 이 외에도 튀르키예 군수기업이 군수품 및 관련 서비스를 아제르바이잔에 제공기로 합의하였고, 2021년 2월에는 제9차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1억 달러 규모의 통상협정도 체결하였음.
- 튀르키예는 이탈리아에 이어 아제르바이잔에서 두 번째로 많은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으며, 아제르바이잔의 대 유럽 송유관(BTC, Baku-Tbilisi-Ceyhan) 및 가스관(BTE, Baku-Tbilisi-Erzurum)이 튀르키예 영토를 경유하고 있음.

에너지 개발, 생산, 수송 등에서 서유럽 국가들과 협력

- 영국 BP, 노르웨이 Equinor, 이탈리아 Snam 등 서유럽 에너지 기업들이 아제르바이잔의 원유·천연가스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하고 있으며, 생산된 원유·천연가스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대부분 유럽 지역으로 수출됨.
- 이탈리아는 아제르바이잔 최대의 원유·천연가스 수출상대국으로, 아제르바이잔의 2021년 전체 원유 수출액(132.2억 달러)의 45.9%(60.6억 달러) 및 전체 천연가스 수출액(55.6억 달러)의 55.4%(30.8억 달러)가 이탈리아로 수출되었음.
- EU의 에너지원 다변화,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 축소를 위해 EU 에너지 장관이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하여 2022년 2월 알리에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천연가스 공급 확대, 전략적 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2020년 9~11월 아르메니아와 전쟁을 통해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상당 부분을 탈환

- 2020년 9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 접경지역인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놓고 무력 분쟁이 발발하여 6주 간 지속되었음. 같은 해 11월 러시아의 중재로 휴전협정이 체결되었고, 러시아 평화유지군이 5년 간 휴전을 감독하기 위해 상주하기로 합의하였음.
- 아제르바이잔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상당 부분을 탈환하였으나, 이후 간헐적으로 소규모 전투가 발생하는 등 양국 간 긴장 관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금년 1월 EU가 동 지역에 민간 감시단을 파견하여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역할을 모색하고 있음.

외채상환태도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비율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연체규모는 크지 않은 수준

- 2022년 9월 말 기준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인수승인 잔액은 전년 동기(23.5억 달러)대비 31.5% 감소한 16.1억 달러이며, 이중 중장기 잔액이 15.0억 달러로 93.2%를 차지함. 연체비율은 0.48%로 상승하였으나, 연체규모는 중장기 740만 달러, 단기 30만 달러로 비교적 작은 규모임.
- 연체비율(%) : 0.02('20.3월) → 0.08('20.9) → 0.56('22.6) → 0.48('22.9)
- 미국수출입은행(US EXIM), 독일 HERMES, 영국 ECGD 등 주요 ECA들은 아제르바이잔 관련 프로젝트에 관해 단기 및 중장기 모두 '인수 가능'으로 분류하고 있음.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4등급 (2023.01)	4등급 (2022.01)
Moody's	Ba1 (2022.08)	Ba2 (2021.04)
Fitch	BB+ (2022.10)	BB+ (2021.05)

국제신용평가3사는 아제르바이잔에 대해 투자적격 등급 부여, OECD는 4등급 부여

- Fitch는 2016년 아제르바이잔의 신용등급을 BB+로 상향 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2021년 5월 등급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하였고, 2022년 10월에는 '긍정적'으로 조정하였음.
- Moody's는 2017년 8월 아제르바이잔의 신용등급을 Ba1에서 Ba2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2022년 8월에는 Ba1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Moody's는 샤데니즈2 가스전 본격 가동 및 에너지 수출가격 상승에 따른 재정건전성 제고, 외환보유액 확충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였음.
- OECD는 에너지 수출 호조, 안보상황 개선, 정치안정 등을 이유로 2022년 1월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였고 2023년 1월에도 4등급을 유지하였음.

- 아제르바이잔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 및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4.2%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액 증가, 소비 회복 등으로 5.6%의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2022년에도 국제유가 상승세 지속으로 3.7%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TANAP 및 TAP 가스관 건설을 통해 2020년 말부터 카스피해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튀르키예를 경유하여 유럽으로 수출하기 시작하였음. 다만,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부문이 GDP의 40%, 수출의 86%를 차지하는 등 에너지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2022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세 지속에 따른 수출 및 GDP 규모 증가로 총수출액 대비 총외채 잔액 비율(87.5% → 57.4%),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43.7% → 35.3%) 등 외채상환능력 지표가 전년 대비 개선되었음.
- 2003년부터 재임 중인 알리에프 대통령은 2025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예정이며 2020년 9~11월 아르메니아와의 전쟁을 통해 접경 지역 영토의 상당 부분을 탈환하여 국내정치 기반을 더욱 강화하였으나, 만성적인 부정부패, 낮은 민주주의 수준, 저하된 언론 자유 등은 부정적인 요소임.